



교육부

2023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2023. 4.

교 육 부
[인재정책실]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사업 비전 및 추진 전략	3
III. 사업 추진 내용	4
IV. 선정 평가 계획	8
V. 사업 관리	10
VI. 향후 추진 일정(안)	13
부 록 1 해외의 융합 교육 사례	14
부 록 2 대주제 별 소주제(예시)	15

I. 추진 배경

□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적 접근 필요

- 연결·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분화·전문화된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 존재
 - 실제, 취업 후 직장·부문 간 이동성 및 학생 전공-직업 불일치 증가에 따라 전공 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 교육 확대 필요
 -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조사 시 "관계없음" 응답 비율(대학교(4년제 이상) 졸 이상) : ('18) 27.9% → ('20) 29.8% → ('22) 31.2%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 해외에서도 다양한 학문 간 융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붙임1】
 - ※ 벤 넬슨(미네르바 대학 설립자) "중요한 것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일이다. 특정 주제 또는 전공에 몰입하는 교육은 확장성이 낮다"

해외 사례	특징
애리조나 주립대의 사회혁신 미래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혁신 예술 학사 : 인문학 및 질적 사회과학 분야가 융합된 교육과정으로 외국어 교과와 함께 이수 • 사회혁신 과학 학사 : 자연 과학, 경제, 공학, 양적 사회과학분야가 융합된 교육 과정
미네르바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미확정 상태로 입학하여 1학년 재학 시 전체 학생 대상 주요 역량 학습 실시 •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용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

- 특히, 최근 AI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인간적 가치, 기술 활용 시의 윤리적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 ※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는 한편 표절이나 대필 문제,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에서 경험한 통찰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해나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 OPEN AI 최고기술책임자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과 다양한 윤리·철학적 질문들이 있으며, 철학자, 사회과학자, 예술가, 인문학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 들여야 한다"('23.2., 「타임」 인터뷰 中)

□ 사회적 필요는 증가하나 대학의 인문사회 교육 기반은 위축

- 대학의 입학 정원 감소 및 대학 별 학과 구조개편 등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 및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입학정원			학과		
	'07	'22	증감율	'07	'22	증감율
인문·사회	142,563명	107,362명	24.7%↓	4,787개	4,441개	7.2%↓
공학	83,260명	90,724명	9%↑	3,066개	3,190개	4%↑

- 특히,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 및 입학정원이 더욱 빠른 속도로 위축

※ 인문·사회계열 학과 수 증감율('07→'22) : 수도권 12%↑ / 비수도권 15%↓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증감율('07→'22) : 수도권 12%↓ / 비수도권 32%↓

- 인문사회계열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학부 교육에 대한 집중적 지원 절실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지속되고 있으나, 인문사회 중심의 학부 교육에 대한 집중적 재정 지원은 부족한 상황

	학부·교육	대학원·연구
인문사회	직접 지원 사업 없음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BK21
이공	첨단분야 지원 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으로 융합 교육 기반 구축

- 재정난 심화, 온라인 수업의 일상화 등 고등교육 분야의 변화에 따라 대학 간 협력이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

※ 미국 고등교육의 단계 구분(Parthenon-EY Education Practice, 2016) : 성장의 시대(1968~1990), 테크놀로지의 시대(1990~2010), 협력의 시대(2010~현재)

- 대학 내 학과 간 융합과 더불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융합 교육 체제 구축

⇒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추진

⇒ 본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이 함께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II. 사업 비전 및 추진 전략

정책
비전

인문사회 기반 융합 인재 양성

추진
목표

-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혁신
-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

핵심 과제

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교육 과정 개발·운영

② 대학의 융합·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 과제

① 다양한 융합 교과목 개발

② 자율적 진로 설계 지원

③ 지속적인 교육과정 고도화

① 핵심 역량 기반 컨소시엄 구성

②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③ 융합·협력 성과 확산

Ⅲ.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개요

- (예산) 총 150억 원 (한국연구재단 관리운영비 8.5억 원* 포함)
 - * 선정평가(대주제별 패널 구성) 및 컨설팅 진행,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포럼 추진 등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
- 공모 후,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 개수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별 지원 금액 결정
- (기간) '23~'25년 (3년) ※ 다만,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3년 사업 기반을 구축(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육 인프라 개선, 학사제도 개편 등)하고, '24~'25년 융합 인재 양성 및 성과 확산 등 추진
- (대상) 대주제 별 1개씩, 5개 내외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인문사회 중심의 학제 간 융합 및 대학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필수
 - **학문 융합** 컨소시엄 별 대학* 수는 3~5개(비수도권 대학 40% 이상 포함)로 하고, 개별 대학에서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참여 필요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체계 상 대분류 기준(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활용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중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하고, 분교와 본교는 구분되는 대학으로 인정
 - **인문사회중심** 인문·사회계열 참여 대학을 '주관대학'으로 지정해야 하며, 인문·사회계열의 70%이상 참여(참여 학과 또는 수혜 학생 기준)를 권장

- 1개 대학은 최대 2개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동일 대학 내 학과·교원의 중복 참여 불가)
- 2개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더라도 '주관대학'은 1개 컨소시엄에서만 가능

- (지원 분야) 컨소시엄 별 5개 대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 대주제 내의 문제해결형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붙임2】의 소주제 예시 참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 역량, 참여 학과, 교육과정 등을 설계

키 워 드	대 주 제
디지털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환경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위험사회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인구구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글로벌·문화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 국내외 문헌 및 이슈 분석 ⇨ 정책 부합도·사회적 관심도 높은 분야 선정
 📖 UN SDGs, EU Horizon 2020, Horizon Europe, 세계경제포럼(Global Risks Report 2022), 국회미래연구원(2022), 사회·경제정책방향 등

2

주요 추진 내용

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 ① 인문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여 응모한 주제 (대주제 내 문제해결형 소주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목 개발
 - 교과목 운영 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적용하고, 비교과 활동**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

* 교수와 학생 간 적극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립러닝, 팀 티칭, 토론·세미나 등

** 인턴십, 현장 전문가의 특강·코칭, 경진대회, 컨소시엄 대학 간 팀 프로젝트, 진로 지도 등 산업체·유관기관·지역사회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② 개발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단기·집중이수형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을 넘어 자율적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소단위 학위과정(나노·마이크로 디그리 등)을 활용해 이수 학생에 대해 인증하는 등 자율적으로 전공 외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위해 단계별(기본-응용-심화 등) 구성

③ 산업체·연구기관·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인문 사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도 사회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조정, 신규 사례 발굴 등의 교육 콘텐츠 최신화 등을 위해 전문가와 협업

※ 컨소시엄 별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융합 교육과정에 대해 심의·환류

2 대학의 융합·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① 대주제를 전제로 문제 해결형 소주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 및 참여 학과 등을 정해 3~5개 대학이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컨소시엄 내의 주관대학은 예산 배분, 참여대학 간 역할 분담, 타 컨소시엄과의 네트워킹 및 성과 공유 등 사업 총괄 조정

- 개별 대학에서도 2개 이상의 학과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학 내에서의 학과(전공) 간 융합 촉진

② 학과 간·대학 간 융합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인적 자원 공유를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및 물리적 기반 마련

-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융합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본부 수준의 제도 개선 추진

《 학사제도 개편 내용(예시) 》

집중이수제 운영, 계절학기 이수학점 제한 완화, 대학 간 최대 교류학점 상향 조정, 대학 간 공동 복수학위 제도 운영, 과목 별 수강인원 확대,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 완화, 다전공 제도(복수전공, 부전공 등) 활성화, 소단위 학위 과정 마련 등

-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해 활용하거나 신규 구축·운영
- ③ 컨소시엄 내에서 융합·협력 성과를 고도화하고 노하우 확산을 위해 타 컨소시엄과의 협력, 사업 미참여 대학과의 공유를 추진
 - 컨소시엄의 교육과정 운영 과정 중 잠재력 있는 융합 연구를 발굴·기획하고, 새로운 전공과의 융합 시도 등 융합 성과 고도화
 - 성과 포럼 및 관련 사업(인문주간, 인문학포럼 등)과의 연계, 우수 강의의 온·온프라인 공개* 등으로 융합·협력의 성과 확산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사업 미참여 대학 학생도 우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탑재로 일반 대중에게 우수 강의 공개

< 사업 단계별 협력 확대 계획 >

단계 구분	컨소시엄 내의 협력 ('23)	컨소시엄 간의 협력 ('24~'25)	전체 대학 공유 ('25~)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내의 대학 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대학 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미참여 대학에도 성과 확산 • 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협력 체계 마련

IV. 선정 평가 계획

1

선정 방식

1 선정평가 방식

- (선정규모·예산)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컨소시엄 별 지원 예산 결정
 - ※ 주관대학은 부가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 추가 배분 예정
- (대주제별 선정) 5개 대주제 별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대주제 별 평가 위원단(7명 내외)을 구성해 평가
- (서면·대면평가) 대주제별 평가 위원단의 서면 및 대면평가로 진행
 -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상피제를 적용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 대면평가는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대학의 참여 필요
 - 평가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하되, 사업 참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부정·비리에 따른 평가 시 감점 및 지원예산 감액은 컨소시엄 내 주관·참여대학의 제한 수준을 평균하여 결정

《 사업 참여 조건 》

- 비수도권 대학의 참여 비율이 40% 이상일 것
- 인문·사회계열(대분류)이 참여하는 대학에서 '주관대학' 역할을 담당할 것
- 인문·사회계열 중 중분류 상의 언어·문학 또는 인문학 분야를 포함할 것
- 개별 대학에서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할 것
- 컨소시엄의 참여대학이 3~5개일 것

-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사업 가신청 접수 → 가신청 접수 결과 공개 → 사업 신청 → 서면·대면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선정결과 공개
 -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름

2

선정지표 구성

항목	지표	배점 (1,000)	세부 지표
목표 및 비전	인문사회기반 전공 융합 및 인재 양성 비전·목표	50	- 컨소시엄의 사업 비전 및 목표 -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 제시 - 컨소시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
사업 추진 체계 (350)	컨소시엄 인력양성 주제의 적절성	100	- 해당 융합인재 양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자체 의견 수렴·반영 권장) - 해당 융합인재 양성 분야의 인력 수요 분석 - 해당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별 여건 및 특성화 분야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과 체계성	100	- 참여 전공(학과)의 융합 필요성 및 가능성 -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주제와의 부합성, 교육과정의 시너지 효과 등) - 컨소시엄 구성의 체계성(주관·참여대학 간 역할,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컨소시엄 수행 과업의 실현가능성	150	-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 계획 - 컨소시엄 참여 학사조직 구성 현황 - 주관·참여대학의 역량과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추진 내용 (550)	융합 교육과정 구성 및 개발 계획	200	-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성·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연계성 - 교육과정·교과목 운영 계획의 적절성(담당 교원 배정 계획, 학사일정 및 운영 방식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개선 계획	100	-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지자체 연계·협력 방안 마련 권장) - 지원 분야 관련 교육 인프라 현황 및 개선 계획
	학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150	- 본 사업 추진 방향과 현행 학사제도와와의 정합성 - 학사제도 유연화 및 학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학생 지원 및 교원 참여 제고 방안	100	- 학생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 교원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예산 및 성과	예산 운용 및 성과관리의 우수성	50	-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 성과 고도화 및 확산 계획 - 성과지표 설정, 성과달성 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

V. 사업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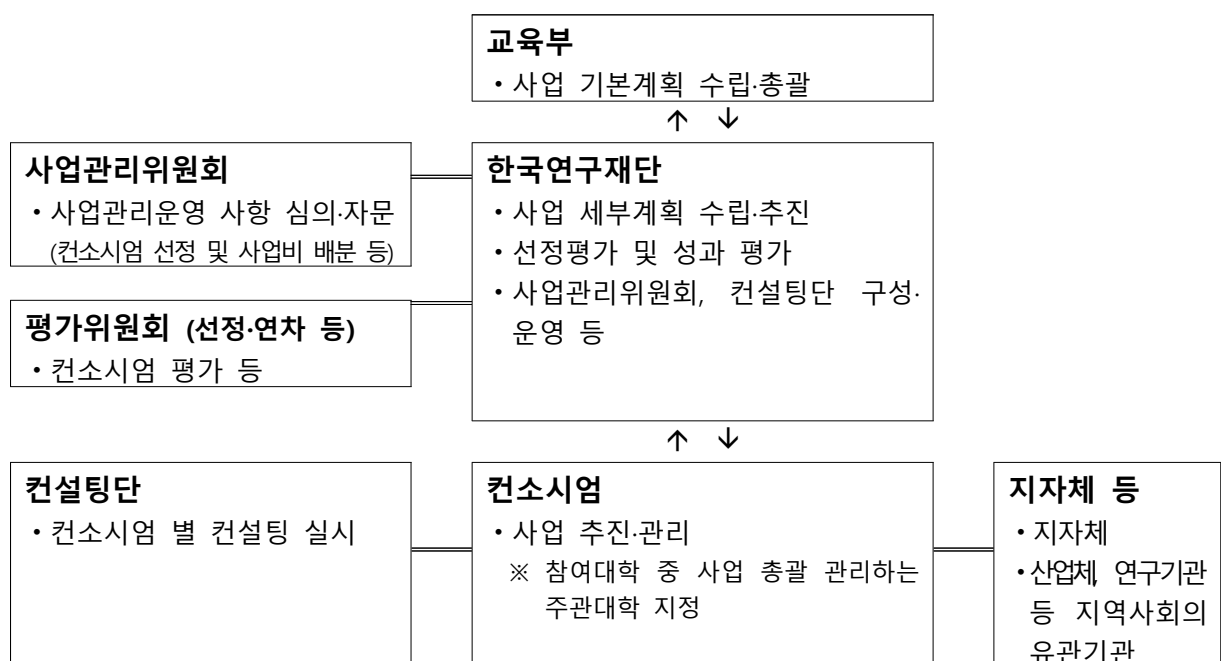
1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의 주요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등 사업 총괄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관리, 선정평가·컨설팅, 성과관리 등 사업 관리 등
- (지원 대상 : 컨소시엄) 사업 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제도 개편, 사업 추진 및 실적 보고, 성과 공유·확산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자문, 지원 대상 확정(선정평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 그 밖의 주요 사항 심의·자문
- (컨설팅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 (지자체 등) 주제 선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컨설팅단, 평가위원 추천·참여 등) 등의 사업 단계에 참여해 대학과 연계·협력

2] 사업 추진 체계도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컨소시엄 구성 대학과 사업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역할 분담에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 가능
- 컨소시엄 별 사업비는 주관대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주관 대학 및 참여대학 모두 별도의 계정을 통해 사업비 관리
 - ※ 사업관리를 위해 대학 내 별도의 전담 조직 또는 부서를 설치·지정하여 운영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하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 타 대학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LINC3.0 등)과 중복 투자 불가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법령위반, 입시비리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가능
 - ※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국고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제재 가능
- 대학은 부정·비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교육부·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즉시 제출
-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 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 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의 자체 부담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국고지원금은 '24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사업 종료 후 주관대학이 전문기관에 사업비 정산(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 및 결과보고(사업비 집행내역서를 포함해 결과보고서 제출)
 - ※ 참여대학은 주관대학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연차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 (평가 방식) 공개 워크숍·포럼 등과 연계하여 연차 평가를 실시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확산
 - ※ 차년도 사업비 배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별도 세부 계획 수립하여 추진
- (평가결과 활용) 평가를 통해 협약사항 이행 여부,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점검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경우 개선 권고, 지원 중지, 사업 참여 배제 등을 검토·적용

□ 핵심성과지표와 자율성과지표의 구성(안)

- 사업의 주요 목표·추진내용을 고려해 모든 컨소시엄에 적용되는 핵심 성과지표와 컨소시엄 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자율성과지표로 구성
 - ※ 세부사항은 연차평가 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핵심 성과 지표(안) 》	
영역	세부지표명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과	융합인재 양성분야 정규교과목 개발·운영 건수
	융합인재 양성분야 정규교과목 이수자 수
	사업주제 연계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확산	컨소시엄 간 공유 교과목 이수자 수
	공동 활용대학 대상 교과목 운영 건수 및 이수자 수 ※ 중장기적 지표로서 3차년도에 점검 예정
교육컨텐츠 만족도	융합인재 양성분야 정규 교과목 이수자 만족도
진로 성과	융합 인재 배출 수 ※ 컨소시엄의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 후 인증서 또는 학위 등을 수여 받은 학생 수
	사업 추진을 통한 취업·진학 실적 ※ 중장기적 지표로서 3차년도에 점검 예정

《 자율 성과 지표 》

각 컨소시엄이 정의하는 지표의 개발과 달성 정도

VI. 향후 추진 일정(안)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공고('23.4.)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신청 접수('23.4.~5.)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선정 평가 실시('23.6.)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예비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23.6.~7.)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23.7.)
- 한국연구재단-선정 대학 간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23.7.)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연번	대학 명	융합형 교육 특징
1	미국 미네르바 대학 (Minerva University)	·온라인 교실에서 입체적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하지 않으며, 120개 세부 핵심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 ·학년 별로 역량 중심 코스 운영 (1학년 : 코너스톤 코스 - 2학년 : 코어 코스 - 3학년 : 집중 코스 - 4학년 : 튜토리얼/캡스톤 코스) ·다양한 교수법 및 학습법 활용 : 플립러닝, 토론 및 세미나 수업, 교수-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중심, 글로벌 로케이션
2	미국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공학을 인문사회과학과 접목하여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공과대학에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가르치고 그러한 사고의 원리들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업 구성 ·워크숍, 현장실습 등 학습 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운영 ·다학문성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진 또한 팀티칭 수행
3	미국 하트포드 대학(University of Hartford)의 All-University Curriculum	·학부생들에게 융합학문기반의 교양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 ·융합학문기반 과정(interdisciplinary courses)의 집합체를 가리킴 ·바칼로레아 프로그램(baccalaureate program) 학부과정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과 상이한 최소 4개 이상의 융합학문 과정(interdisciplinary course)을 이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강의는 각기 다른 학과 교수진들로 구성된 팀 티칭으로 진행되고 2~3명의 교수들이 주 1회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합동 토의, 토론,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진행하며, 추가로 1~2주에 한번 각 교수들이 맡은 부분을 개발적으로 지도
4	영국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의 PPE(Philosophy-Politics-Economics)	·철학-정치학-경제학을 융합한 과정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미래의 직업 선택과 활동 전반 영역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다학제 과정 ·학생들은 세 가지 학문을 모두 공부할 수도 있고, 둘만 선택하거나 인접학문인 사회학·국제관계학과의 결합도 가능 ·1학년 때는 철학·정치학·경제학 입문과정을 학습하며, 2~3학년 때는 세 분야에서 5개의 강좌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며, 다양한 선택과목도 제공
5	독일 융합 학문 교육	·독일연구처(DFG)가 대학이나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자들이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받은 연구팀이 대학의 교육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 ·일시적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기반 위에서 연구와 교육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체계적 대응
6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Maastricht University)	·인문학 중심의 새로운 학부대학 모델 ·UCM(University College Maastricht Science), MSP(Maastricht Science Programme), UCV(University College Venio)라는 세 개의 학부대학으로만 구성 ·대학 교육이 직업·기술 교육 그 자체가 아닌 일반적 지식과 지적 역량 함양을 지향하므로 인문학 교수와 과학·기술 담당 교수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FHS(Faculty of Humanities and Science)라는 통합단위에 모여 있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핵심 교과는 반드시 수강하도록 의무화
7	프랑스 응용 인문학	·프랑스의 여러 대학들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문화기획'이나 '문화경영'과 같은 일종의 응용인문학 분야 전공을 발전시켜 옴 ·문화와 관련하여 문학, 예술, 사회학, 매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등의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강좌들을 제시함

지원 대주제		소주제 (예시)
1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의 인간다움의 가치 제고 - 디지털 시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와 문화 - 디지털 공간의 언어 이해와 활용 - 디지털 폴리스와 도시 혁신
2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기술과 사회적 연대의 융합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주의 기반의 실천교육 - 공존과 상생을 위한 환경정책
3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 성장과 한국 사회의 위험 -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 자연적 위험(재난)과 국가정책 - 초연결사회의 안전망 구축 - 초지능사회의 신뢰성 회복 (탈진실,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디지털 혐오 등) - 바이오 산업기술과 위험
4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이민 증가와 다민족·다문화 사회 - 갈등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응 (세대간·계층간·젠더간 갈등 등) -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응 - 불안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응 (세대별 특수한 불안요소 잠재·표출 등)
5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협력과 사회적 가치 - K-Content와 글로벌 한국 - 글로벌 사회와 문화적·종교적·인종적 갈등 - 선도형 문화창신을 위한 실천교육 -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협력 - 신냉전 체제와 한반도 평화